

왜 여장한 남자가 ‘가부키’ 에 등장하는가?

가부키(歌舞伎)는 일본의 대표적인 무대예술로써 400년간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, 여러 우여곡절을 견디며 면면이 계승되어 오늘날 까지도 일본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고 있음

□ 가부키(歌舞伎)의 유래 및 어원

- 일본의 대표적인 고전연극 가부키는 에도(江戸)시대 1603년경 이즈모타이샤(出雲大社)라는 신사(神社)에서 오쿠니(阿国)라는 미코(巫女, 신사에서 봉사하는 미혼 여성)가 염불에 가락을 붙여 춤을 추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짐
 - 원래는 종교적 목적으로 염불에 맞추어 추던 춤이었으나 이전과 달리 색다른 시도를 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음
 - 가무를 하는 것은 물론 남장을 하고 술집에서 술을 먹는 장면을 연출한다든지, 당시 포르투갈 등에서 수입된 희귀한 옷으로 치장을 하는 등 이국적인 분위기를 선보였음
 - 이러한 이상하면서도 기발했던 춤을 ‘가부키오도리(かぶきおどり)’라고 불렀음
- 가부키는 가부쿠(傾く)라는 동사원형에서 만들어 졌는데 가부쿠는 한쪽으로 쏠린다는 뜻과 함께 평범하지 않고 특이한 모습 혹은 우스꽝스럽다는 의미도 갖고 있음
 - 즉, 당시 가부키는 그간 접해보지 못했던 이색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음

- 이러한 평범하지 않은 행동은 일상생활에까지 확산되어 자신의 키와 비슷한 길이의 칼을 차고 다니거나 긴 담뱃대를 사용하는 등 남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유행처럼 늘어났고 이런 사람들을 가부키모노(かぶき者)라고 불렀음

□ 가부키(歌舞伎)의 변천

- 전혀 색다른 시도를 하며 유행을 만들어갔던 당시 오쿠니의 춤을 모방하여 여자들만으로 구성된 극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음
- 이러한 유형의 가부키가 성황을 이루자 극단에서 매춘을 겸하는 경우가 생겨났고 여자 배우들이 연관된 풍기문란 사건도 끊이지 않았음
- 당시 막부정부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1929년에 이른바 여자배우가 등장하는 온나가부키(女歌舞伎)를 금지시켰음
- 그 이후 다양한 조건부로 가부키가 다시 허가를 받아 무대에 올려 지기는 했으나 이후로 가부키 무대에 여자가 등장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음
- 가부키가 금지되자 가부키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과 가부키 애호가들이 해당관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고 관청은 머지않아 여자배우들 대신에 남자만으로 구성된 가부키라면 공연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리게 됨

□ 와카슈가부키(若衆歌舞伎)

- 우여곡절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소년 배우들이 등장하게 되는 와카슈가부키(若衆歌舞伎)임
- 남장을 한 여자들이 노래와 춤을 연출하는 가부키 대신에 미소

년들이 여장을 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가부키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됨

- 이 당시부터 남자가 여자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를 오야마(女形) 혹은 온나가타(女形)라고 함
- 남자배우가 변칙적으로 여자 역할을 맡는 특수 연출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가부키 역사에서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음
- 실제 와카슈가부키는 기존의 온나가부키와 비교하여 연극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소녀 역할을 소년이 대신하는 정도의 변화였다고 볼 수 있음
- *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객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가부키가 대사나 배우의 연기 능력이 중요한 연극이라기보다는 춤을 추며 아름다운 미모를 관객들에게 선보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임
- 에도(江戸)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츠(徳川家光)는 당시 가부키에 등장하던 미소년들을 자주 집으로 불러 곁에서 지켜봤던 것으로 유명함
- 그런데 이에미츠가 사망한 이듬해인 1652년에 와카슈가부키 역시 온나가부키와 비슷한 이유에서 공연이 금지됨
- 미소년들이 남색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소년들과 당시의 귀족 부인들과의 불순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다시 가부키 공연이 사라지게 되었음
- 금지되었던 가부키 공연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1653년에 여론에 힘입어 부활하게 됨
- 이번에는 남색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못하도록 머리와 복장을 청년 차림새로 할 것과 춤과 노래만이 아닌 상세한 줄거리를

가진 연극이어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였음

- 이렇게 다시 관객들 앞에 선보인 가부키는 여자보다 더 자연스러운 온나가타를 연이어 탄생시키며, 춤과 노래로 관객의 시선을 모았던 기존의 연극형태에서 크게 벗어나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내용전개를 해나가며 현대의 가부키의 모습을 갖추게 됨

□ 가부키(歌舞伎)의 특징

- 가부키는 노래(歌)와 춤(舞)과 솜씨(伎)가 하나로 묶여져 이루어 내는 연극임
 - 노래는 세 줄로 되어 있는 샤미센(三味線)이라는 악기와 함께 부름
 - 춤은 가부키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미를 연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임
 - 마지막으로 솜씨에 해당하는 연기는 동작 하나하나에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것이 기본이며, 특히 이러한 연기 기술은 배우들이 대를 이어가며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
- * 새롭게 자기만의 연기 기법을 창안해내고 다시 그것이 후배 배우에게 세습되면서 보다 세련되어져 가는 것으로, 그래서 가부키 배우들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음
- * 꾸준한 훈련과 선배 배우들의 기법을 익혀야만 비로소 뒤를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대를 이어 세습되는 것을 슈우메이(襲名)라고 하며, 선배 배우의 이름만 이어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기 기법과 고정 팬까지도 물려받게 됨